李在旭의 著作과 業績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ritings and Achievements of Jaewook Lee in Korea

송 승 섭 (Sung-Seob Song)*

목 차

1. 서 론
2. 이재욱 관련 가계·연보 및 선행연구
3. 이재욱의 저작 목록 및 내용 분석
4. 이재욱의 저작과 업적 평가
5. 결 론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대 국립도서관장 이재욱의 저작 목록과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통해 그가 도서관계에 미친 업적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집된 이재욱의 저작 목록과 새로 수집한 목록의 원문을 찾아 비교함으로써 전체 목록의 수정과 보완,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재욱의 저작은 단행본, 도서관 전문지, 교양 잡지, 각종 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190건의 목록으로 완성되었다. 다음, 당대 관련 사료와 함께 목록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재욱의 업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다양한 고전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책과 글에서 문헌학과 서지학적 가치를 찾아냈다. 둘째, 그는 일제강점기 근대 도서관의 이론과 실제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셋째, 각종 매체에 발표한 칼럼과 에세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넷째, 미 군정청이 요구한 국립도서관의 법제 도서 이관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도서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선구적 리더십으로 초기 국립도서관의 위상과 기초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다섯째, 조선도서관협회장으로서 도서관 사업 강습회, 독서주간 제정 및 실시, 대외 교류 등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해야 할 핵심사업을 추진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collect and organize the writings and related materials of Lee Jae Wook, the first director of Korea National Library, and, therefore, find out his achievements in the library system. By comparing existing and newly collected lists of Lee's writings, the total lists had been revised and complemented. As a result, the lists were finalized with 190 writings which were published on books, library journals, cultural magazines and various newspapers. In consequence of analyzing the writing-lists with historical records, Lee's accomplishments are as follows: First, he find philological and bibliographical value in Korean books and writings by studying classic literature. Second,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grafting theory and practice of modern library into Korea in Japanese colonial era. Third, he made an effort to diffuse reading culture all around Korea through column and essays he published. Fourth, he contributed to make status and fundamental of early National Library with pioneering leadership by solving a problem of transferring National Library's legislation books that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requested and founding Chosun Library School. Fifth, he implemented the core business of environment of Korean Library such as library clas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eading Week, foreign cooperation and etc., as a president of Chosun Library Association.

키워드: 이재욱, 국립도서관장, 이재욱의 저작, 이재욱의 업적, 조선도서관협회
Lee Jae Wook(Uk), Director of National Library, Lee Jae Wook's writings, Lee Jae Wook's achievement, Chosun Library Association

---

*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및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 부교수
(libsong@mju.ac.kr / ISNI 0000 0004 6322 6760)
논문접수일자: 2021년 1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2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2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619-644, 2021.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1.619

www.kci.go.kr

1. 서 론

이재욱은 우리나라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이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문학과를 졸업하고 1931년 조선총독부도서관에 囑託으로 들어가 '司書'를 거쳐,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서열 2위인 '부관장'까지 한 인물이다. 해방 후, 미 군정기에는 초대 국립도서관장이 되어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나라 국립도서관을 이끌어갔다. 이재욱은 수편의 단행본을 출판했고 많은 논문과 글들이 잡지와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여러 사람의 증언록에 의해 그가 국문학 및 민속학 분야의 권위자였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존의 자료 목록을 통해서도 그가 도서관 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로서 당대 도서관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학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반경도 넓어서 조선어문학회와 진단학회, 조선서지학회의 발기인었으며, 조선도서관협회 2대 회장을 맡았고, 조선도서관학교를 만들어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재욱 관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서관계에서는 특히 연구 활동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한국 민속학 분야에서 이재욱을 연구하고 『이재욱 전집』(2013)을 편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배경숙은 "이재욱 선생은 한국 근대사 초반기에 매우 큰 성과를 이룩한 중요 인물이며, 동시에 굴곡 많았던 현대사의 파란 속에서 어이없이 매몰된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즉,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전에 이룩한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거나 가치의 전복을 겪는 일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이혜숙, 백창민(2019)은 "그가 (전쟁 중에) 행방불명된 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2]한 것도 이유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의 '무관심'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현 국립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는 초대 국립도서관 부관장 박봉석의 동판이 자리 잡고 있고, 2층 문화마루 전시 공간에도 초대 관장이 아닌 부관장인 박봉석만을 기리고 있다. 박봉석이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할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반해 근대 도서관 발전의 또 다른 선구적 인물이었던 이재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이 연구는 이재욱 관련 저작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재욱 관련 저작 목록을 완성함으로써 이재욱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그의 저작과 관련 활동을 통해 그가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미친 업적을 올바르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욱 본인의 저작과 관련 문헌, 당대 사료, 외부 평가자료도 함께 조사하여, 저작 관련 목록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절차로써 먼저 수집된 목록이 실제 존재하는지 원문을 찾아보았고, 다음으로 신·구 목록을 원문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수정, 보

1)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내의 대한민국인사록과 조선총독부직원록, 그리고 영남민요연구회 편『이재욱전집1』발간사의 기록을 간추려 정리한 것임.
2) 이재욱 아들, 이정하 가족은 1981년 미국에 이민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임동권 309).

www.kci.go.kr

완하였다. 끝으로,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이재욱의 업적과 도서관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다만 조사된 원문 상당수가 당대 일본어와 고어로 기술되어 있어 내용 파악이 쉽지 않고, 지면 제한도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이재욱 저작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키워드 중심의 내용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재욱의 도서관계 저작에 집중하고자 타 학문 분야의 관련 조사와 인물 평가는 최소한으로 했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도서관 관련 분야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서이다.

2. 이재욱 관련 가계·연보 및 선행연구

이재욱은 조부 이병학(李柄學)[3]이 중추원 참의를 지낸 대구 명문가의 부유한 집안에서 1905년, 부 이정희(李鋌熙), 모 김행이(金幸伊)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시인 고월 이장희가 삼촌이기도 하다. 이재욱은 경상북도 大邱府 출신이지만, 대구고보(현 경북고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다. 경성제국대학 졸업 후에 바로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근무했다. 이재욱의 경성제국대학 문학과(조선문학 전공) 입학은 1926년 4월 1일 자『조선총독부 관보』제4084호 '入學志願者選拔試驗合格者' 명단에 게재되었고, 1926년 4월 2일 자 조선일보와 매일신보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또한, 1931년 3월 26일 자 동아일보와 매일신보는 이재욱을 포함한 경성제대 졸업자 명단을 보도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의 입학과 졸업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특히 조선인에게는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었다.[4]

『조선총독부직원록』에 따르면 이재욱은 1931년 조선총독부도서관 囑託으로 들어가 1939년 司書로 승진했다. 이후 1943년 부관장까지 올라갔지만 1945년 초, 사직하고 대구로 낙향하여 경북도청 사회교육과에서 근무했다. 해방 이후, "박봉석을 비롯한 동료 직원의 추대를 받아 초대 국립도서관 관장이 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사 242-3)고 하는데, 金載元(1992)의 자서전에 따르면, 李丙燾[5]와 본인이 함께 추천하여 미 군정청 문교부 교화국으로부터 위촉되었다고 전한다. 사실, 당시는 미 군정기로서 대한민국 정부 미수립기다. 미 군정청과 인연이 있었던 金載元의 추천이 가장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6]

3) 이병학은 대한제국의 관료이자, 일제강점기의 관료 겸 기업가이자 금융인으로, 신일본주의를 표방한 국민협회와 관련하여 활동했다. 사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중추원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위키백과 참조).

4) 당시 대학을 졸업한다는 의미는 지금과 다르다. 해방 직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곧바로 교수가 되었고 그래도 모자라는 자리는 전문학교 출신으로 충당될 정도였다(김재원 1992, 91). 평론가 조용만(1954, 202-3)에 따르면, 이재욱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와 동국대학교 교수를 지낸 것으로 전하고, 김선풍(1996, 204)은 그가 성균관대 교수를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재욱의 대학강사 및 교수 경력에 대해서는 그 학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여러 사람의 회고록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그가 대학에서 강의한 것은 분명하다.

5)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에 따르면, 김재원은 1945년 10월 이재욱과 같이 國立博物館長이 되었고, 이병도는 이 시기 京城大學 法文學部 敎授였다.

6) 이재욱의 국립도서관장 任命辭令은 1945년 10월 16일자 미군정청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Appointment Number 16.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Seoul, Korea).

www.kci.go.kr

또한『대한민국인사록』에 보면, 이재욱은 국립도서관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울市 阿峴洞 369의 8번지(옛, 국립도서관 아현동 서고 뒤편 관사)에 거주했다. 여기에서 많은 집필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일본인 사서들이 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1947년에는 「조선도서관학교」를 열었고, 「조선서지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조선도서관협회 제2대 회장으로도 취임하여 도서관 발전에 힘을 보탰지만, 한국전쟁 중에 행방불명되었다. 1950년 7월 18일에 인민군에게 연행되어 피랍되었다는 기록과 호적등본을 근거로 해서 의정부에서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다(이재욱전집1, 발간사). 그러나 이재욱의 아들 이정하(xii-xiii)의 글에 따르면, 1950년 6월 서울이 공산군에게 함락된 후, 아직 "국립도서관이 평양팀에 접수되기도 전에 공산당에 아부하던 부하직원에 의해 반동분자로 잡혀 사회안전국 정치보위부에 구금된 이후에는 전혀 소식도 듣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그의 행방불명과 납북 사이에 불분명한 점이 남아 있다.

이재욱에 관한 선행연구는 한국 민속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연구가 배경숙(2008)의 박사학위 논문인 "이재욱의『영남전래민요집』연구"이다. 이후 배경숙은 이 논문을 2009년 국학자료원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했고, 2013년 다시 국학자료원은 이재욱의 도서관계 발표자료를 포함하여 3권에 달하는『이재욱 전집』을 출간했다. 이 전집에는 이재욱의 민속학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도서관 분야 단행본『農村 圖書館의 經營法』(1935)을 비롯하여 신문, 잡지에 발표한 56편의 각종 글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최근 조혜린(2020)이 조선총독부 기관지『文獻報國』에 게재된 이재욱의 연구논문과 관내 일지 분석을 통해 이재욱의 연구 경향과 업적, 그 생애를 최초로 연구한 바 있다.

이 밖에 金善豊(1995, 1996)은 이재욱의『民謠集』과『童謠集』을 중심으로 그의 글을 분석한 바 있고, 조영만(1954)과 임동권(2013), 김재원(1992)은 회고록 속에서 이재욱에 대한 소회를 남겼다. 조영만은 경성제대 조선문학과 1년 후배로서 당시의 생활, 교우 관계와 납북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는데, 해방 후 한국 잡지 중 최초로 이재욱의 인물사진이 실려있다. 임동권 역시 대학 동문이지만 연차가 많이 나는 후배로 국립도서관을 다니면서 당시 이재욱 관장에게 '조선 민요'에 대해 배우고, 열람실과 서고를 이용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였다. 김재원(1992)은 회고록에서 이재욱이 국립도서관장으로 추천되고 임명되는 과정을 담았다. 이렇듯 이재욱에 관한 연구나 회고는 부분적이며 그것도 민속학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최근 서지학 분야의 하나의 연구성과로 근대서지학회에서『근대서지』(2013)[7]를 통해 이재욱의 이력과 저작 목록을 보완한 것이다. 특히 배경숙의 서지에서 부분적으로 나왔던『文獻報國』에 수록된 42편의 저작을 모두 찾아낸 것은 큰 성과이다. 필자는 이 글 3장에서 다룰 이재욱의 저작 목록 작성과 분석을 위해 이상에서 밝혀진 배경숙의 목록과『근대서지』의 저작 목록을 교차 확인하여 보완하였고, 일제강

7) 근대서지(2013) 특집자료의 編者 註에 의하면, 이재욱 관련 핵심 서지는 동국대학교 경주도서관 학술서비스팀장과 동국대 출판부장을 역임한 이철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www.kci.go.kr

점기의 또 다른 학술지와 신문・잡지도 조사하여 추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8] 그 결과, 전체 목록을 완성하고 대부분 자료의 원문을 확인하였지만, 모두 1950년대 이전 자료이다 보니 일부 신문과 잡지의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3. 이재욱의 저작 목록 및 내용 분석

이재욱의 저작은 앞서 2장에서 일부 설명한 것과 같이 민속학계와 도서관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여러 장르로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그 수를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 글에서는 그의 많은 저작 중에서 도서관계 활동을 나타내는 저작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되 이재욱의 정체성과 퍼스낼리티를 나타내는 초기 민속학 관련 저작들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3.1 민속학 관련 저작 현황 및 분석

먼저, 단행본 형태는 필사본으로 『동요집』(1929)과 『영남전래민요집』(1930)이 있다. 이 두 편의 책은 그의 졸업논문 『嶺南民謠硏究』의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여러 학회지와 잡지에 나타난 그의 논문 현황이다.

〈표 1〉에 소개한 이재욱의 단행본과 학술지의 성격을 민족 문화론의 연구와 성과로 분류하고 있다(이재욱전집 2013). 이름 대신 필명[9]을 여러 곳에 쓴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조선총독부도서관에 근무하던 자신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표 1〉 민속학 관련 학술지 발표자료

	논문명	서지사항	발표연도	비고
1	朝鮮의 白衣俗考[10]	新興3(2):63-69	1931.07	
2	抄註芝峯 方言 雜談	朝鮮語文學會報2(13)	1931.10	筆者名: 八公山人
3	所謂「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	新興3(3):73-80	1931.12	筆者名: 八公山人
4	鄕土硏究界一瞥: 特히 朝鮮 及 日本	朝鮮語文學會報(3):15-16	1932.02	
5	達勾地方俗言一束	朝鮮語文學會報(3):22-23	1932.02	筆者名: ㄹㅈㅇ
6	歌謠의 硏究와 整理는 如何히할까	朝鮮語文學會報(4):9-10	1932.04	
7	Isabella.L.Bishop 著 Sijo・A-ra-rung etc	朝鮮語文學會報(5):14-15 [抄譯]	1932.09	筆者名: (八)公山人
8	故蘆汀金在喆君 吊辭[11]	朝鮮語文學會報6(2)	1933.02	
9	朝鮮民謠序說	林和, 朝鮮民謠選	1939.03	해제에 실렸음

8) 「한국사데이터베이스」(근대 신문・잡지 목록, 조선총독부직원록, 대한민국인사록, 근현대인물사전, 한민족독립운동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조선총독부・미군정청・대한민국 관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국회도서관과 서울대학교도서관 DB 등을 활용하였다.

9) 八公山人은 그의 고향인 대구 팔공산을 뜻하는 것이고, ㄹㅈㅇ은 그의 이름 초성을 약자로 쓴 것이다.

10) 이 논문은 2019년 10월 '온이퍼브'에서 전자책으로 재발간 되었다.

11) 이재욱은 교우 관계가 원만해서 1932년 1월 31일에는 『조선연극사』를 쓴 김재철이 사망했을 때, 조선어문학회를 대표하여 조사를 했다(임동권 313).

www.kci.go.kr

생각된다. 1931년 3월 31일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곧 조선총독부도서관 촉탁으로 들어갔는데 이해 6월에 경성제대 조선어문학 전공 출신들과 재학생을 포함한 同人會「朝鮮語文學會」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33년에는 회장이 되었으며, 1934년 5월 7일에는 조선어문학회의 후신 격인「震檀學會」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런데「朝鮮語文學會」의 조직과 의의에 대해서『한민족독립운동사』(1991, 9권 310-311)에 그 평가가 기술되어 있다. 일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경성제국대학 내에 조선어학 및 문학과가 설치되자, 여기에 한국인 학생이 입학하였다. 그 가운데 조윤제(1회)・이희승(2회)・3회인 이재욱과 김재철이 중심이 되어 4명이 힘을 모아 1931년 6월 조선어문학회를 조직하였다.... 1931년 7월 31일 동인지인 ≪조선어문학회보≫를 창간・배포하여 우리의 말과 글을 한국민 앞에 제시하고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추출(抽出)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과학성・독창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중에게 신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본다. 이 점이 곧 민중 운동적인 입장에서의 어문학의 연구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들은 경성제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도 한국어문학을 전공하는 신진 학도들이 모였으므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연락하에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의 폭을 마련하고 기반화하여 '열성으로 앞으로 진행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느니만큼, 젊은 패기와 정열로 격월간의 학회보를 통해 나라를 빼앗긴 울분도 털어놓았던 것이다. 뒤에는 김태준(金台俊)・방종현(方鍾鉉)・이숭녕(李崇寧)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활발한 어문학 연구 열의를 높였다.

이상 기술된 사실과 평가를 통해 이재욱은 경성제대에서 조선 문학을 전공한 엘리트로서 조선총독부도서관 촉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조선 문학 전반에 대해 조예가 깊었고, 졸업 이후에는 조선어문학회를 통해 민중을 각성시키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 관련 잡지의 성격과 저작 현황 분석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 관련 주요 전문잡지로는 ≪朝鮮之圖書館≫, ≪文獻報國≫, ≪讀書≫, ≪文化源泉:良書≫ 등이 있다. 다음은 이 잡지들에 대한 기본 해제이다.[12]

먼저 중요도에 따라보면, 조선총독부도서관은 1935년 10월 관보로서 ≪文獻報國≫이라는 이름의 기관지를 창간하였다. '문헌보국'의 의미는 문헌으로서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일본의 국가주의적 표상을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방침을 반영하여 세워진 것이 조선총독부도서관이고, 그 기관지로 창간한 것이 바로 ≪文獻報國≫인 것이다. 이 관보 초반부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실무, 정책, 학문적 이론과 철학 등 각종 논문과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다. 관보 중후반으로 가면 도서관 소식과 함께 신착도서분류목록, 선만(鮮滿)관계 중요잡지기사목록, 선내(鮮內)발매금지도서목록, 경무국납본목록, 문부성추천도서소개, 조선총독부도서

12) 이하 잡지의 성격과 현황에 관한 내용은 國立中央圖書館史(1973, 218-222)와 加藤一夫(2009, 214-225), 그리고 여기에 소개한 4개 잡지의 원문을 보고 필자가 해제한 것이다(한국도서관사연구회 편 2020, iv-vii).

www.kci.go.kr

관 비치 잡지 및 신문목록, 선내계속발행출판물 일람표, 관세월보(館勢月報) 등의 항목이 고정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곧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이 목록들을 통해 이른바 '불온서적'은 사전에 차단하고 총독 정치에 충실한 도서와 잡지의 목록만을 선정하여 소개함으로써 조선인 대중을 사상적으로 지도하고 문화적 침탈을 보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일제에 의한 근대 도서관의 이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 자료 중에는 상당 부분 근대 도서관의 운영원리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1대 국립도서관 관장과 부관장을 지낸 이재욱과 박봉석 등 근대 도서관계의 선각자 역할을 한 주요 인사들의 논문과 글들이 이 잡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당시 평양에 인정도서관을 설립하였던 김인정 여사의 활동 등 한국인이 세운 사립도서관의 여러 활동 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文獻報國≫은 1935년 10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1944년 12월호까지 통권 102호를 발행했다. 이 잡지를 조사해보면, 조선총독부도서관 운영의 세세한 부분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전체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일본이 근대 도서관학을 서구 유럽으로부터 받아들여 식민지 도서관에 어떻게 이식하고자 했는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文獻報國≫만큼 의미는 크지 않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잡지로 ≪朝鮮之圖書館≫을 들 수 있다. 1926년 3월 「경성도서관연구회」가 결성되어 발행한 도서관계 잡지이다. 이 연구회는 당시 조선의 도서관 유지들도 포함되어 구성되었는데 그 대상 회원은 철도국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 조선총독부도서관, 경성제국대학도서관의 직원들이었다. 1928년 3월부터는 「조선도서관연구회」로 개칭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서관 직원이 아닌 일반인도 회원으로 모집했다. 1931년부터 1938년까지 통권 30호를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외에 회원이 속한 각지 도서관의 이용 통계, 행사 예고, 각종 회합 등의 활동 보고, 신간 소개, 서평, 신간 선정 도서목록, 수필 등이 게재되어있다. ≪朝鮮之圖書館≫ 창간호 명부에 따르면 회원은 모두 116명이었고, 이 중 조선인은 25명이었다. 1939년 「조선도서관연구회」는 다시 한번, 「조선도서관연맹」으로 개칭하여 그 활동을 지속하였고, 동년 7월 7일에는 ≪文化源泉:良書≫라는 기관지를 창간하여 매월 발행하였다. 이 연맹의 주된 목적은 전시 체제하에 사회교육에 충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 회원은 조선 내의 부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 연구회의 변화과정에서 보면, 일본의 문화통치 시기에는 ≪朝鮮之圖書館≫회지 편찬에 한국인들도 한동안 참여했지만, 1935년 10월 조선총독부도서관의 ≪文獻報國≫ 창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간섭으로 ≪朝鮮之圖書館≫은 폐간되고, 이후 일본인 중심의 도서관연구회와 조선총독부도서관 기관지로 경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1937년 1월에 발족한 「朝鮮讀書聯盟」에서 발행한 ≪讀書≫도 있지만 ≪文化源泉:良書≫와 같이 조선총독부도서관 소관으로 관리된 일종의 소식지로서 ≪文獻報國≫이나 ≪朝鮮之圖書館≫과 같이 깊이 있는 도서관 저널은 아니었다. 이렇게 4개의 도서관 관

www.kci.go.kr

〈표 2〉 학술논문 및 도서관 관련 기사 게재 현황

	논문명/서지사항	발표연도	형식(비고)
1	躍進朝鮮と公開圖書館, 1(1):7-10	1935.10	이하, 잡지〈文獻報國〉
2	朝鮮の古文獻を保存せよ, 2(2):1	1936.09	卷頭言
3	字訓諺解(盧守愼 著), 2(2):13-14	1936.09	稀書解題
4	圖書館週間을 當하야, 2(4):7-8 *단신	1936.11	도서관주간해설
5	春香傳の傳本に就て, 2(4):28-29	1936.11	書誌學研究特講
6	扈聖功臣信城君翊敎書, 2(4):41	1936.11	稀書解題
7	(奎宿秒)社會統制, 3(9):16	1937.09	단신
8	(館報)長崎紀行, 3(10):19-20	1937.10	나가사키 기행
9	李朝實錄の成立に就て, 3(12):14-35	1937.12	제7회 독서회연구발표
10	農村に關心を持て, 4(12):1	1938.12	卷頭言
11	奎章閣開設の緣由に就て(上), 5(1):8-15	1939.01	제85회 관원연구발표
12	奎章閣開設の緣由に就て(下), 5(2):10-17	1939.02	
13	(後凋錄)論山・夫餘・公州-全州府圖書館開設準備に參加して, 5(3):13-15	1939.03	전주도서관개관준비위 참석기록
14	(Overseas section)Über Koreanische Novellen, 5(5):2-4 *Ri Chai Uk	1939.05	독일어 번역문
15	朝鮮の小說, 5(5):25-26	1939.05	海外欄
16	年頭感, 6(1):1	1940.01	卷頭言
17	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敎書, 6(4):6	1940.04	稀書解題
18	(向上板)隨想, 6(4):16-17	1940.04	단상
19	氏の設定, 6(4):22	1940.04	常識講座
20	島崎(末平)氏を悼む, 6(5):23	1940.05	常識講座
21	淸山島遊錄, 6(7):16	1940.07	稀書解題
22	(每朝講話)愛國, 6(7):21	1940.07	단상
23	(稀書解題)洛下生稿, 6(9) *시작 전 표제지면	1940.05	본관특별도서소개(4)
24	(後凋錄)北鮮隨伴記, 6(11):15-16	1940.11	단상
25	燕行圖幅, 7(1) *시작 전 표제지면	1941.01	稀書解題
26	年始感, 7(1)	1940.01	卷頭言
27	朝鮮の典籍に就て(1), 7(2):8-10	1941.02	제99회 공개 관원 연구 발표
28	朝鮮の典籍に就て(2), 7(3):9-12	1941.03	
29	朝鮮の典籍に就て(3), 7(4):7-9	1941.04	
30	朝鮮の典籍に就て(完), 7(52):7-90	1941.05	
31	高麗 崔瀣 著 東人之文・向日庵本, 7(11)	1941.11	稀書解題
32	(後凋錄)最近に於ける朝鮮の圖書館界, 7(11):11-12	1941.11	도서관계 비평
33	館員の心構, 8(2):1	1942.02	卷頭言
34	本館所藏古活字及印刷道具一式解說, 8(4)	1942.04	고활자 해설
35	牧場圖解說, 8(5)	1942.05	稀書解題
36	三臣新修 東國史略に就いて(上), 8(9):8-11	1942.09	제121회 공개 관원 연구 발표
37	三臣新修 東國史略に就いて(下), 8(10):8-13	1942.10	
38	飜譯 小學十卷 解說, 9(1)	1943.01	稀書解題
39	圖書の供出, 9(4):1	1943.04	卷頭言
40	太平廣記詳節解說, 9(6)	1943.06	稀書解題
41	柳馨遠とその隨錄, 9(12):2-4	1943.12	제131회 공개 관원 연구 발표
42	讀書心の啓培, 10(3):1	1944.03	卷頭言
43	朝鮮學海 鼇見, 1(3):24	1935.05	잡지〈讀書〉
44	朝鮮關係圖書紹介(3)朝鮮詩歌史綱, 1(4):48	1937.08	잡지〈讀書〉
45	(新刊圖書 紹介)農村圖書館 經營法, 5(1):37	1935.10	잡지〈朝鮮之圖書館〉
46	서물(書物)과 권수(卷數), 2(2):2	1939.08	접지〈文化源泉:良書〉

* 「개정조선민사령」에 의해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이 시행되었고 이재욱도 1941년부터는 '靑木修三'(Aoki Shūzō)이란 이름으로 ≪文獻報國≫에서 發表함.

www.kci.go.kr

련 간행물은 출판기관이 각기 소속을 달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편집, 인쇄, 출판을 맡은 것으로 모두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기관지와 다름이 없었다. 이재욱의 글 대부분은 ≪文獻報國≫에 실려있고, 단 4편 만이 다른 도서관 잡지에 소개되어 있다.

〈표 2〉는 ≪文獻報國≫을 중심으로 게재된 이재욱의 논문 및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목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재욱의 글이 수록된 조선총독부도서관 관련 4개 잡지를 살펴본 결과, 46편 중 42편이 ≪文獻報國≫에 게재되었고, ≪讀書≫ 2편, 그리고 ≪朝鮮之圖書館≫과 ≪(文化源泉)良書≫에도 각 1편이 포함되어 있다.[13] 글의 원문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되었다. 글의 형식은 『근대서지』(2013)에서는 전부 '논문'으로 구분했지만, 내용 분석 결과 21편은 논문으로 보기 어려웠다. 독서회(1) 및 공개관원연구회(9) 발표자료 10회, 희귀도서(10) 및 고전(5) 해제 15회 등 25편은 학술논문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오늘날의 논문과는 형식이나 길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 주제에서는 이조실록의 성립, 규장각 개설 연유, 조선의 전적, 東國史略, 유형원의 磻溪隨錄 분석 등 우리나라 고전 중심의 전문적인 연구가 발표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해 字訓諺解(자훈언해), 扈聖功臣信城君翊敎書(호성공신신성군후교서), 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敎書(분충찬모립기정사공신교서), 淸山島遊錄(청산도유록), 洛下生稿(낙화생고), 太平廣記詳節(태평광기상절), 燕行圖幅(연행도폭), 고려 시대 최해(崔瀣)가 지은 東人之文・向日庵本(동인지문・향일암본), 牧場圖解說(목장도해설), (번역) 소학 해설, 춘향전 전본, 고 활자와 인쇄 도구 해설 등 희귀도서의 해설과 고전 해제 형식의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논문 외의 글의 형식으로 볼 때, 권두언 7회, 도서관 운영 관련 칼럼 및 단상 13회 등 20편이 있고, 본인 책 소개(광고)가 1편 있었다. 한편 이상 4개의 도서관 잡지에는 게재되지 않았지만, 『근대서지』(2013) 목록에 나타난 자료를 포함하면, 다음 5회의 조선총독부 독서회 발표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14]

- 1931.06.25. 第7回 朝鮮總督府圖書館 讀書會發表「諺解書に就て」
- 1931.12.22. 第11回 朝鮮總督府圖書館 讀書會發表「圖書館字體及其書法」
- 1933.05.16. 第26回 朝鮮總督府圖書館 讀書會發表「朝鮮の古文獻を保存せよ」
- 1934.03.13. 第34回 朝鮮總督府圖書館 讀書會發表「北鮮地方の在家僧に就て」
- 1935.03. (미상) 朝鮮總督府圖書館 讀書會發表「隈疊戲に就て」

이상 대부분의 글은 조선 고전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재욱이 민속학 관련 주제 외에도 조선 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서지학에 능통했

13) 이재욱 전집(3권, 280)에는 『滿鮮文化史觀』(鳥山喜一. 東京: 刀江書院 1935)에 관한 이재욱의 서평이 목록에 나와 있으나 ≪文獻報國≫ 목차나 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어서 이 연구의 대상 목록에서는 제외했다.

14) 이 자료들은 1931년 6월부터 1935년 3월까지 발표된 자료로 1935년 10월에 창간된 ≪文獻報國≫에는 게재될 수 없었지만 이후, 다른 지면을 통해 소개되었다.

www.kci.go.kr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권두언과 칼럼 및 단상을 통해 도서관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0여 년간 학술지 성격의 도서관 잡지에 46편의 글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그의 학문적 열의와 전문성, 근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들 논문 및 칼럼과 같은 시기에 간행된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 農村 圖書館의 經營法. 1935. 경성: 한성도서(주). p.60.[15]
- (校註)尤庵先生戒女書. 1939. 경성: 대동인쇄. p.29.[16]

도서관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農村 圖書館의 經營法』은 일종의 도서관 경영론으로 근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최초의 전문 서적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인이 지은 도서관 관련 전문서로서 1935년 이전의 책은 발견되지 않았다. 촉탁 때, 쓴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荻山秀雄(오기야마 히데오) 조선총독부 도서관장의 서문이 붙어있을 정도로 이재욱의 위치는 공고했다.[17]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조선 농촌과 도서관의 관계를 다룬 총설, 도서관의 건축, 도서관용 각종 기구와 용지, 도서 수집의 방도와 도서의 선택, 도서 정리법, 열람사무 일반(관내 대출, 관외 대출, 순회 문고), 장서 통계와 열람통계, 경비와 유지 문제 등이 그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소책자지만, 근대 도서관이 성립되는 시기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침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1930년대는 조선 인구의 8할 이상이 농촌인구였고, 그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시기로 도서관을 통한 농촌 계몽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었다.[18]

3.3 해방 전·후의 도서관계 잡지 외 간행물 게재 목록과 현황 분석

이재욱이 다양한 잡지에 기고한 글의 양이 많아 해방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해방 전후의 구분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를 나누는 기점이기도 하지만 일제하의 조선총독부도서관 촉탁, 사서 시절의 글과 해방 이후 국립도서관장으로서의 글을 나누는 구분이기도 하다.

〈표 3〉 해방 전, 도서관계 잡지 이외의 간행물 게재 현황을 보면, 1937년부터 1944년까지 약 7년간 24편의 글을 10개 잡지에 수록하였다. 대부분 문예평론과 에세이, 소논문 형태의 글이다.

15) 이재욱의『農村 圖書館의 經營法』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1935년 9월 13일 자(4면), 9월 15일 자(3면))에 신간·서평으로 소개되었다.

16)『(校註)尤庵先生戒女書』는 우암 宋時烈이 권씨 가문에 출가하는 장녀를 위하여 적어둔 훈계를 현대식 문장으로 교정하여 주석을 붙인 것으로 그의 해박한 고전 이해 및 서지학적 능력을 나타낸 책이다. 이 책은 내용을 부가하여 1947년 정음사에서 재발간 되었다.

17) 이 책은 오기야마 히데오 관장의 지원을 받아 1937년 5월 전국 주요 도서관에 기증 배포되었다(조혜린 290).

18) 당시 농촌운동과 관련해서 농촌 문고를 제안한 姜辰國(경성부립도서관 직원, 조선도서관연구회 이사)이 ≪朝鮮之圖書館≫에 발표한 아래 논문들도 당대의 농촌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 대안으로 평가되어 可藤一夫(가토 가즈오) 등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可藤一夫 234). ① 1936.12. 農村文庫建設の急務(一), 5(6): 2-14, ② 1937.07. 農村文庫建設の急務(完), 6(1): 8-40.

www.kci.go.kr

〈표 3〉 해방 전, 도서관계 잡지 외 간행물 게재 현황

	제목	서지사항	발행 연도
1	春香傳 原本	삼천리 9(5)	1937.10
2	春香傳의 傳本에 就하야	批判 76-79	1939.01
3	獵書餘墨(엽서여묵)	博文 12호:36-37	1939.10
4	改訂小學總論: 名著 解說	人文評論 2(1):110-113	1940.01
5	寺刹과 板本	文章 2(4):176-178	1940.04
6	婦人과 讀書	女性 5(4)52-55	1940.04
7	讀書와 書籍(조선금융연합회 刊)	家庭之友 18호	1940.05
8	探書	新時代 1호:140-143	1941.01
9	圖書館 이야기	春秋 2(2):176-179	1941.03
10	讀書	朝光 7(4):135-138	1941.04
11	關王廟(관왕묘)	朝光 7(6):186-187	1941.06
12	우리 圖書館의 珍本稀書(4): 釋譜詳節과 淸太宗詔諭	春秋 2(5):194-199	1941.06
13	圖書群	朝光 8(1):130-134	1942.01
14	圖書供出	朝光 8(5):144-145	1942.05
15	尤庵先生戒女書	朝光 8(6):88-98	1942.06
16	戰爭과 讀書傾向(1954년에 재수록)	春秋 3(9):143-4, 146-7	1943.10
17	朝鮮近世古典叢談 朝鮮の實學派とそ著書(1)	國民文學 3(11):36-45	1943.11
18	朝鮮近世古典叢談 朝鮮の實學派とそ著書(2)	國民文學 3(12):52-58	1943.12
19	朝鮮近世古典叢談 朝鮮の實學派とそ著書(3)	國民文學 4(1):53-58	1943.01
20	曆의 常識	朝光 10(2):100-109	1944.02
21	朝鮮近世古典叢談 朝鮮の實學派とそ著書(4)	國民文學 4(2):45-51	1944.02
22	朝鮮近世古典叢談 朝鮮の實學派とそ著書(5)	國民文學 4(3):47-53	1944.03
23	朝鮮近世古典叢談 朝鮮の實學派とそ著書(6)	國民文學 4(4):50-54	1944.04
24	朝鮮近世古典叢談 鮮の實學派とそ著書(完)	國民文學 4(6):61-66	1944.06

저작의 주제는 춘향전, 소학, 사찰본, 관왕묘, 우암선생계녀서, 釋譜詳節(석보상절)과 淸太宗詔諭(청태종조유), 曆의 상식 등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전 중심 해제와 평론이 대부분이다. 또한, 근세 고전의 총론적 담론으로서 실학파의 저서를 다룬 것이 16편이고 獵書餘墨(엽서여묵), 부인과 독서, 독서와 서적, 탐서, 도서관 이야기, 독서, 도서군, 도서 공출, 전쟁과 독서 경향 등 독서와 도서관과 관련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사성 있는 에세이가 8편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논문과는 다른 형식을 취했지만 중복된 주제가 많다. 다만, 독서에 관한 주제의 폭이 넓어지고 좀 더 글이 대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해방 후, 현황이다.

해방 후, 도서관 계 잡지 외의 일반 간행물 게재 현황을 보면, 대략 5년여 기간에 22개 잡지에 37편이 발표 또는 재수록되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국립도서관 관장으로서의 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고려대장경, 우리 문헌, 이조실록, 일제가 매장하였던 서책, 고전의 수호, 병난과 조선 전적, 고전 해제 및 당면문제, 근세조선 실학파의 대두, 고적 보존의

www.kci.go.kr

〈표 4〉 해방 후, 도서관 계 잡지 외 간행물 게재 현황

	제목	서지사항	발행 연도
1	가을과 讀書	協同 2호:17-20	1946.02
2	良書	民心 2(2):128-129	1946.03
3	크나큰 판목 高麗大藏經	(주간)소학생 14호	1946.03 *
4	우리 文獻의 再吟味	學生月報 2(2):176-179	1946.04 *
5	李朝實錄의 成立에 就하야(1)	鄕土 1호:2-22	1946.07
6	日帝가 埋葬 하였던 書册	新世代 3호:25-26	1946.07 *
7	李朝實錄의 成立에 就하야(2)	鄕土 2호:20-44	1946.08
8	중학생이 꼭 읽어야 할 책	學生 1호:17-20	1946.10
9	古典의 守護	新天地 1(9):114-118	1946.10
10	兵亂과 朝鮮典籍	新潮 1호	1947.04
11	장승	鄕土 6호:31-32	1947.10 *
12	自主精神	民主朝鮮 3호:31-33	1948.01
13	日本知識에서 朝鮮知識에로 轉換하는 讀書傾向	國際報道 3(1):116	1948.01
14	收書片想	民主警察 2(4):180	1948.09
15	우리 古典의 當面問題	白民 16호:117-120	1948.10
16	苦言	現代科學 9호:37	1948.11
17	겨울 斷想 (통권80호)	개벽 10(5):84	1948.12
18	女性과 讀書: 어떤 册을 어떻게	婦人 4(1):27	1949.01
19	圖書館論	새교육 4호:66-69	1949.02
20	古典解題・讀書1	協同 21호:87-88	1949.03
21	敎育者와 敎養	새교육 5호:7-12	1949.03
22	學者와 우리	大潮 4(1):72-74	1949.03
23	平凡한 提言 *을서문화사	學風 2(3):100-101	1949.04
24	古典解題・讀書2	協同 22호:102-105	1949.05
25	古典解題・讀書3	協同 24호:146-151	1949.09
26	책수종횡담(册數縱橫談)	文藝 1(3):157-158	1949.10
27	讀書論 *독서특집	協同 25호:56-62	1949.11
28	中學生과 讀書	中學生 1(4):6-7	1949.12
29	女性과 讀書	婦人 5(1):42-43	1950.01
30	강좌;국사	수험계 4호	1950.02 *
31	近世朝鮮의 實學派의 擡頭	새교육 11, 12합호:16-19	1950.03 *
32	奮發	文藝 2(4):159-160	1950.04
33	국사중요문제연구④	수험계 2(4):18-21	1950.04 *
34	강좌;국사	수험계 7호:8-11	1950.05 *
35	古蹟保存의 意義	新天地 5(6):172-174	1950.06
36	戰爭과 讀書傾向	新天地 9(1):202-204	1954.01
37	婦謠에 나타난 女性의 悲哀	民俗學報 1호:171-173	1956.05

*: 원문 미확보 기사

www.kci.go.kr

의의 등 고전 및 전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룬 소논문과 비평이 13편이고, 가을과 독서, 양서, 중학생과 독서, 중학생 필독서, 여성과 독서, 독서론 등 독서 관련 에세이가 8편이다.

이밖에 16편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미군정기(1945.9.9~1948.8.15)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단상을 다룬 글들도 눈에 띈다. 도서관론, 수서 관련 단상은 도서관 운영 문제를 나타낸 것이고 '자주정신'이나 '일본 지식에서 조선 지식에로 전환하는 독서 경향' 등은 시대적 이슈를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자와 학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나타나고, '국사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 보인다. 이는 해방 전의 글보다는 주제 범위가 대단히 넓어졌고 그 형식도 다양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철학이 담긴 그의 '도서관론'과 '독서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 다만, 이 당시에는 학술지와 일반 잡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고, 글의 형식도 소논문과 비평, 수필의 형태가 다소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형식이나 장르를 구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재욱은 1931년 12월부터 1947년 5월까지 이상의 각종 신문, 잡지에 실었던 글 중, 14편의 글을 『독서와 문화』라는 책으로 1947년 8월에 조선계몽문화사를 통해 발간했다. 이 책에는 독서, 가을과 독서, 학생과 독서, 우리 고전의 재음미, 탐서, 도서군, 獵書餘墨, 춘향전, (개정)소학총론, 조선의 실학파, 歷의 상식, 전래민요, 關王廟, 산유화가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의 글들이 어떤 것이었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19]

3.4 국립도서관 기관지 게재 현황 분석

국립도서관의 첫 기관지인 ≪國立圖書館館報≫와 이후 제명이 바뀐 ≪文苑≫에 수록된 이재욱의 글을 조사,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일제강점기인 조선총독부도서관 시기에는 ≪문헌보국≫을 비롯하여 기관지 성격의 여러 잡지가 발간되었지만, 해방 이후 미 군정기에 시작된 국립도서관은 바로 기관지를 발행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1945년 10월 15일 개관 이후 이듬해인 1946년 3월에 ≪國立圖書館館報≫가 간행되기 시작했는데 10호까지는 철필로 쓴 등사본이었고, 1947년 1월부터 잡지명을 ≪文苑≫으로 바꿔서 4면의 인쇄본으로 간행했는데 이 기관지는 1956년 2월까지 발행되었다.[20] 우리나라 국립도서관 기관장으로서 이재욱은 이 잡지에 창간사와 신년사를 비롯하여 기존에 다른 잡지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독서와 고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썼다. 특별히 과학의 진흥과 과학 공부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은 특징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1946년 3월 ≪國立圖書館館報≫ 3호에 나타

19) 현재 이 책은 (재)아단문고와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으며, 서울대는 전자자료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울대 소장 책의 내용을 살펴보니 경성제국대학 후배인 일사 방종현 선생을 나타내는 '일사문고' 표시와 '저자로부터'라는 글씨의 흔적이 있다. 이재욱이 후배 방종현에게 준 것으로 '경성대학장서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1954년 2월 이전에 방종현이 기증한 걸로 판단된다(서울대학교도서관50년사, 19).

20) 원문 조사 결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文苑 11호, 文苑 47호가 빠져있어 13편의 글이 있고, 나머지 2편은 이재욱 전집(2권)에서 확인되었다.

www.kci.go.kr

〈표 5〉 국립도서관 기관지 國立圖書館館報와 文苑 게재 현황

	제목	서지사항	발행 연도
1	創刊辭	國立圖書館館報(통1호):1-2	1946.03
2	式辭(朝鮮圖書館學校開校)	國立圖書館館報(통3호):1-2	1946.05
3	新年辭	文苑11호:1	1947.01
4	우리의 珍本(一)	文苑12호:2	1947.02
5	우리의 珍本(完)	文苑13호:2	1947.03
6	農村과 讀書	文苑19호:1	1947.09
7	自主精神 下에 널니배우자	文苑21호:1	1947.11
8	送舊迎新辭	文苑23호:1	1948.01
9	科學의 振興	文苑26호:1	1948.04
10	우리나라의 册(第1回)	文苑31호:1	1948.09
11	年頭辭	文苑35호:1	1949.01
12	우리나라의 册(第2回)	文苑40호:1	1949.06
13	讀書週刊을 마지하여	文苑44호:1	1949.10
14	送年辭	文苑46호:1	1949.12
15	과학 공부에 힘쓰자	文苑47호:1	1950.01

난 「朝鮮圖書館學校」의 開校에 관한 것이다. 일제하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도서관을 운영했던 일본인 사서들이 패전과 함께 철수한 이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나라 사서의 인력 양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욱이 「조선도서관학교」를 개교하고 그 강의를 주관했던 것은 한국도서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었기 때문이다.

3.5 국내 신문 게재 현황 분석

이재욱은 전문 서적과 학술논문, 일반교양 잡지 외에도 다양한 글을 많은 신문에 발표하였다. 다음 〈표 6〉은 국내 신문에 게재된 이재욱의 글을 발행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신문 기사는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 전 기간을 한 번에 살펴보았다. 1935년 11월 이후, 이재욱이 주요 중앙지 등 각종 신문에 등장한 것은 50건에 달한다. 이 중 본인이 필자로 참여한 것이 13개 신문사에 44편에 달해 그의 왕성한 대외활동과 영향력을 보여준다. 해방 전에 조선총독부 도서관 촉탁과 사서 신분으로서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3개 신문사에 연재를 포함하여 8편의 심도 있는 글을 실었다. 동아일보에 네 차례 연재했던 『在家僧漫考』[21]와 "朝鮮學海の一督"[22]의 게재를 통해 그가 젊은 시절부터 일찍이 학문적 전문성과 연구 능력을 드러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1) 『재가승만고』는 함경도 등 북한 쪽에서 나타난 재가승의 유래와 습속, 분포 등을 다룬 것으로 최근에 전자책으로 출판되었다(이재욱 지음 2019.11. 편집부 옮김. 온이퍼브).

22) 앞서 논문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으로 당대의 조선편수회, 진단학회 등 우리나라 학회 현황 및 연구 실태를 평가한 것이다.

www.kci.go.kr

〈표 6〉 국내 주요 신문 게재 현황

	신문기사 제목	신문명	발행일	비고
1	在家僧漫考(1)	東亞日報	1935.11.30	논문(3면)
2	在家僧漫考(2)	東亞日報	1935.12.3	논문(3면)
3	在家僧漫考(3)	東亞日報	1935.12.4	논문(3면)
4	在家僧漫考(4)	東亞日報	1935.12.7	논문(3면)
5	朝鮮學海の一督(上)	每日新報	1937.6.27	논설(6면)
6	朝鮮學海の一督(下)	每日新報	1937.6.30	논설(10면)
7	一日一人: 圖書舘과 文化生活	每日新報	1938.4.7	칼럼(1면)
8	大衆講座: 圖書館에 對하여	朝鮮日報	1938.7.21	강좌소개(4면)
9	大衆講座: 圖書館에 對하여	東亞日報	1938.7.21	강좌소개(4면)
10	趣味講演: 獵書(엽서)이야기	東亞日報	1938.11.4	강좌소개(3면)
11	公開될 古書 八萬卷: 그 內容 一般에 대하야	朝鮮日報	1939.2.28	칼럼(5면)
12	우리 國立圖書館 개관: 공개 못했던 장서도 다수 진열	自由新聞	1945.10.25	단신(2면)
13	立法機關의 先鞭, 國立法制圖書館創設	中央新聞	1945.12.19	일반기사(2면)
14	간혔던 李朝實錄 五個年 繼續으로 影印 刊行-편집위원	東亞日報	1946.3.29	일반기사(2면)
15	귀중한 문화재「李朝實錄」	자유신문	1946.4.1	단신(2면)
16	一人一言: 學者에의 願望	現代日報	1946.6.18	칼럼(1면)
17	書籍難의 打開	京鄕新聞	1946.11.28	칼럼(4면)
18	나의 생각: 圖書館을 擴充하야 人民의 敎養을 높이자[23]	京鄕新聞	1947.1.26	칼럼(3면)
19	圖書 閱覽 統計上으로 본 最近 讀書界 動向(上)	中央新聞	1947.4.19	칼럼(4면)
20	圖書 閱覽 統計上으로 본 最近 讀書界 動向(下)	中央新聞	1947.4.20	칼럼(2면)
21	讀書와 現實問題	漢城日報	1949.9.7	칼럼(4면)
22	도서관으로서의 要望	朝鮮出版新聞	1948.5.25	칼럼 *
23	獵書瑣言(엽서쇄언)	京鄕新聞	1948.10.30	칼럼(3면)
24	圖書館事業講習	京鄕新聞	1948.10.7	단신(3면)
25	讀書와 그 指導	서울신문	1948.12.3	칼럼(2면)
26	朝鮮民謠集成을 읽고	東亞日報	194812.31	서평(2면)
27	民族과 娛樂: 健全한 娛樂의 大衆化	漢城日報	1949.1.1	기획칼럼(3면)
28	겨울	자유신문	1949.1.1	칼럼(7면)
29	겨울	자유신문	1949.1.4	칼럼(3면)
30	讀書餘錄: 讀書와 當面課業(1)	京鄕新聞	1949.2.1	칼럼(3면)
31	讀書餘錄: 讀書와 當面課業(2)	京鄕新聞	1949.2.2	칼럼(3면)
32	文化: 彼此의 所願	聯合新聞	1949.2.25	칼럼(4면)
33	文化公議, 文化會舘을 設立하자	聯合新聞	1949.3.11	칼럼(4면)
34	新春隨筆: 修養과 趣味(上)	朝鮮日報	1949.4.1	칼럼(2면)
35	新春隨筆: 修養과 趣味(下)	朝鮮日報	1949.4.2	칼럼(2면)
36	高晶玉 著, 朝鮮民謠硏究	京鄕新聞	1949.4.6	서평(3면)
37	여성들의 독서경향	京鄕新聞	1949.10.16	칼럼(2면)

23) 이재욱의 인물사진은『조선총독부도서관사진집』단체 사진에 등장하지만, 개인 사진은 찾아보기 어렵다. 1947.1.26. 경향신문 칼럼에 최초로 인물사진이 보이고, 이후에는 1949.3.9. 연합신문 칼럼에 등장한다.

www.kci.go.kr

	신문기사 제목	신문명	발행일	비고
38	讀書의 意義	國都新聞	1949.10.31	칼럼 *
39	精神修養을 가지라	京鄕新聞	1949.11.6	칼럼(2면)
40	讀書와 文化水準	京鄕新聞	1949.11.7	칼럼(2면)
41	내가 본 社會相: 형식생활을 숭상	부인신문	1949.11.29	칼럼(2면)
42	좋은 册을 골라서 읽자	서울신문	1949.12.19	칼럼(2면)
43	奎章閣 圖書 等 70萬卷 貴重한 우리나라 古文獻(제언)	京鄕新聞	1949.12.25	제언(2면)
44	새해 提言: 吹毛覓疵말자	서울신문	1950.1.11	칼럼(1면)
45	文化: 外郭에서 본 우리 文壇, 돈버리에 右往在往: 舊作의 再版과 改作	漢城日報	1950.2.11	칼럼(2면)
46	古典과 現代文學(1)	朝鮮日報	1950.2.24	비평(2면)
47	古典과 現代文學(2)	朝鮮日報	1950.2.25	비평(2면)
48	新書讀後記 金水鄕 驛『轉落의 歷史』	京鄕新聞	1950.4.11	서평(2면)
49	崔常壽 著『朝鮮口碑傳說誌』	東亞日報	1950.4.29	서평(2면)
50	新書讀 後記 崔常壽『朝鮮수수께끼辭典』	京鄕新聞	1950.5.12	서평(2면)

*: 원문 미확보 기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3편의 강좌소개(8-10번)를 통해 그가 조선총독부도서관 사서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도서관'과 '취미'를 주제로 대중강연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24]

1945년 10월 이후로는 한국인 최초의 사서 출신 국립도서관 관장으로서 사회적 신분이 높아진 상태에서 5년여간 39편에 등장했다. 3편의 국립도서관을 다룬 기사는 그의 업적과 관련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사만 여기에 실었다.[25] 그중 일반 단신으로 기사화된 '이조실록' 기사(14-15번)는 그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집중했던 사안이다. 해방 이후 이조실록의 분실과 훼손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시점에서 그는 「이조실록편찬위원회」 편집위원으로서 '이조실록 편찬사업'에 관여하게 된다.

이 밖에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우리나라 고전과 독서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었고, 도서관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눈에 띈다. 13개 신문사 기사를 보면, 최근 독서계 동향, 서적 난의 타계, 도서관 확충, 열람통계, 도서관 요망, 독서지도, 독서 의의, 독서 경향, 독서문화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난다. 또한, 문화회관 건설, 여성, 정신수양, 사회상, 문단 등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나타내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1950년에 들어서서는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 4편의 서평도 실린다. 그만큼 한국 문학사에서 그의 역량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의 중요한 업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자. 〈표 6〉 13번, 1945년 12월 19일 中央新聞과 관련된 기사이다. 다음 〈표 7〉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기사

24) 이재욱은 대중강연 외에도 경성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하여 '독서와 도서관프로그램'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찾지 못했다.

25) 〈표 6〉의 목록은 이재욱 본인이 참여한 기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국립도서관과 관련된 기사는 최소화하였다. 지방지를 포함하여 더 많은 신문 기사가 추가될 수 있지만, 연구의 목적상 제한했다.

www.kci.go.kr

〈표 7〉 국립도서관의 '법제 도서' 이관 관련 기사

	신문 기사 제목	신문명	발행일
1	立法機關의 先鞭, 國立法制圖書館創設	中央新聞	1945.12.19
2	알 수 없는 軍政法令第67號 ; 國立圖書舘法律書籍全部 法制圖書局으로 移管	漢城日報	1946.5.3
3	國立圖書館法書籍, 法制圖書局에 移管, 軍政廳記者團建議書提出	中央新聞	1946.5.4
4	法制圖書移轉의 波紋擴大 ; 全文化界結束反對 國立圖書舘을 熱烈擁護 全文化界結束 反對 國立圖書舘을 熱烈擁護.	現代日報	1946.5.5
5	國立圖書館에 喜報, 書籍移管令 削除可能	現代日報	1946.5.8

를 정리한 것으로 연관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1945년 12월 10일, 미 군정청은 이재욱 관장에게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법령제정을 위해 법제도서관(法制圖書館)을 신설하고자 하니 국립도서관의 법제 자료와 해당 예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절대 반대를 선언한 이재욱 관장은 '장기 대출과 본관 내에 특별조사실 별도 설치'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제안은 군정법령 공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26] 이어 1946년 4월 25일에 이르러서는 강제집행의 압력이 있었지만, 5월 1일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군정청 문교부와 사법부의 수뇌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하고 국립도서관의 사명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설득했고, 「법률도서이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회단체와 저명인사들을 찾아가 호소하였으며,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박사를 비롯해 한국을 이해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5월 3일에는 사회단체들이 모여 「국립도서관도서옹호협력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군정장관, 문교부장, 사법부장에게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언론기관 역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였다. 국립도서관 이용자들도 자발적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조선도서관협회」 역시 군정 장관에게 법령을 철회해 달라고 진정하였다. 결국, 1946년 5월 11일 정오 12시 30분 중앙방송을 통해, 미군정청은 법령 제67호에서 "국립도서관에 있는 법률도서를 법제도서관에 이관한다는 구절을 제거하였다고 군정장관을 대리하여 챔패니 대령이 오늘 발표하였다"라는 특별뉴스를 방송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다양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반쪽짜리 국립도서관을 막으려고 최일선에서 지휘한 이재욱 관장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고군분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1948년 10월의 "圖書館事業講習" 기사는 「조선도서관협회」 회장으로서의 그의 역할과 위상을 나타낸다. 「조선도서관협회」는 1947년

26)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7호 제3조(서적 및 예산액 배분의 법제도서관에의 이관)에 의거, 국법제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도서관에 소장한 법률 부문 서적은 법제도서관으로 이관하고, 서적의 교부는 사법부장의 요구에 따라 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과거 5년간 법률 부문 서적구입에 사용된 금액의 평균액에 해당하는 국립도서관의 예산액을 법제도서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www.kci.go.kr

부터 1949년까지 매년 도서관이나 학교 근무자를 대상으로 무료강습회를 주관했다. 이 강습회 강사로는 이재욱을 비롯하여 박봉석, 김진섭, 이병도, 김창집, Mae Graham(ALA, Chief Office of Placement and Personnel Records) 등이 있었고, 3년간 144명의 교육생이 참석했다. 또한, 이재욱은 1949년 1월 18일에는 미 군정 시에 일방적으로 사용되던 '圖書員', '副圖書員'을 종래 명칭인 '司書官', '司書'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서를 문교부장관, 법제처장, 총무처 인사국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1947년 「미국도서관협회」 회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으며, 이후 한국학 자료를 기증하고, 도서 목록 카드를 받기도 했다. 1949년 9월 17일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매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를 독서주간[27]으로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기 「조선도서관협회」의 기반을 세우는 데 공헌했다(한국도서관협회 44-46).

4. 이재욱의 저작과 업적 평가

3장에서 180건이 넘는 이재욱의 저작 목록을 살펴보았는데 중복을 막기 위해 기재하지 않은 단행본과 단행본 속에 들어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 李在郁 著. 1947.『李朝實錄攷』. 서울: 正音社, 48p.
- 方鍾鉉 編. 1947.『朝鮮文化叢說』중, 在家僧(21-36), 「古典의 守護」(197-208), 東省社.
- 白鐵 編, 1955.『現代評論隨筆選』중, 寺刹과 板木(267-269), 서울신문사.
- 朴奉石 編, 1948.『朝鮮東書編目規則(KCR)』중, 「序」(문), 國立圖書館.

이 중 '李在郁 著'는 그간의 논문을 정리해서 낸 단행본이고, 방종현과 백철이 편찬한 3편은 기존의 저작을 재수록한 것이다. 박봉석 편 『조선동서편목규칙』에는 인사말 형식의 서문을 썼다. 지금까지 수집해서 작성한 목록을 〈표 8〉로 정리하였다.

이재욱은 앞서 필사본 형태로 남긴 2편의 『동요집』과 『영남전래민요집』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졸업논문인 『영남민요연구』를 남겼다. 1931년 3월 31일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1939년 3월까지 9편의 논문을 남겼는데, 이 논문들의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론만으로도 그가 한국 민속학계에 미친 영향과 업적은 크다.[28] 이와 더불어 1931년 6월 경성제대 조선어문학 전공 출신 및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同人會 「朝鮮語文學會」를 발기하고 ≪朝鮮語文學會報≫를 통해 활동한 것에 대한 평가는 『한민족독립운동사』(1991)에서 그 가치를 인정한 만큼 의미가 크다.

1931년 3월, 졸업 이후에 조선총독부도서관 촉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문학도에서 도서관인으로 변신하게 된다. 그는 촉탁, 사서, 부관장을 거치는 1939년까지 조선 문학과 역사, 고전

27) 경향신문(1949.10.10. 2면), 동아일보(1949.10.10. 2면)
28) 이재욱은 근대적 민요연구 방법론을 최초로 제시하여 '민요수집 카드'와 '한 지역 집중 조사법'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외국의 최신 민요연구 방법에 뒤지지 않았다(임동권 314).

www.kci.go.kr

〈표 8〉 이재욱 저작 목록 작성 현황

	시기별/형태별 저작 목록 구분	건수	비고
1	초기 필사본 2건, 학위 논문 1건	3	
2	민속학 관련 학술지 발표 자료	9	
3	조선총독부도서관 관련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등	46	1건은 신간소개
4	조선총독부 독서회 발표 자료	5	
5	해방전, 교양·전문잡지 게재 현황	24	
6	해방후, 교양·전문잡지 게재 현황	37	원문 미확인 8건
7	국립도서관보(문원) 게재 현황	15	
8	국내 신문(칼럼, 논단, 서평) 44건, 단순 소개 및 관련 기사 6건	50	원문 미확인 2건 간접기사 6건
9	단행본과 단행본 내에 게재된 글	7	
계	* 이재욱이 직접 저술한 게재 기사는 190건	196	

등 문헌학과 서지학 지식을 바탕으로 조선총독부도서관 기관지인 ≪문헌보국≫과 도서관 전문잡지인 ≪조선지도서관≫, ≪문화원천:양서≫, ≪독서≫ 등에 모두 46편의 글을 남겼다. 여기에는 모두 15회의 독서회 및 공개 관원 연구 발표회 자료(미수록자료 포함) 등 학술논문 형식으로 수록된 것만 25편이나 된다. 이를 통해 그가 당대의 도서관 전문직으로서 훌륭한 연구 업적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29]

특히 논문과 별도로 1935년에 발표한 단행본『農村 圖書館 經營法』은 한국인 최초의 도서관 관련 전문서[30]로서 의의가 크며, 당대에 가장 살기 어려웠던 후진적 농촌에서의 도서관 경영법을 논했다는 측면에서 그의 관심사와 사상적 지향을 엿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성상,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식민지 조국에 근대 도서관을 이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재욱은 도서관계 전문잡지 이외에도 30개 잡지에 61편의 글을 실었다. 춘향전을 비롯한 조선의 고전을 다룬 논문 형식의 글들과 다양한 독서 관련 문제를 이슈화하는 칼럼이 대다수를 이룬다. 그에게 고전연구와 독서 진흥 문제가 인생의 핵심 키워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특히 해방 이후 국립도서관장이 된 후에는 5년 여간 22개의 다양한 잡지에 37편을 발표했다는 것은 문헌학 및 서지학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와 역사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그의 사회적 위상과 함께 성실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1947년 잡지에 소개된 대표작 중, 14편이『讀書와 文化』라는 단행본으로 묶여 조선계몽

29)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 관련 4개 도서관 잡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논문 및 게재한 글 수에 있어서 사서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앞섰다. 박봉석의 저작은 26편으로 나타났다.

30) 근대서지(2013)에 따르면 이재욱이 1947~1948년경 저술한『朝鮮書誌學概論』(講義案 노트)이 있으며, 이는「한국애서가클럽회장」呂丞九가 所藏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확인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학 개론서가 될 것이다.

www.kci.go.kr

문화사에서 나왔고, 오래전부터 연구해 온 이조실록 관련 연구도 『李朝實錄攷』로 정음사에서 출판되었다.

이재욱의 국내 주요 신문에 게재된 논고와 칼럼을 보면 그의 위상과 능력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다. 1935년 '재가승만고'를 동아일보에 연재한 이래로 1950년 행방불명 전까지 13개 신문사에 44편에 이른다. 이조실록 문제와 같이 신문에서 주장한 글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그는 「이조실록간행위원회」 편집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1946년 3월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에도 추천회원으로 참여하였고, 1949년 12월에는 전향작가를 포함한 「한국문학가협회」 결성에도 참여하는 등 문필가로서 사회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31]

이상 앞서 조사한 이재욱의 도서관에서의 활동 사항을 사진 자료로 확인하면 〈그림 1〉과 같다.[32]

① 제1회 조선도서관강습회기념사진(O:이재욱 1931.8)

② 조선총독부도서관 10주년 기념사진(1935.4)

③ 조선도서관연맹 창립 기념사진(1939.4)

④ 국립도서관 관장(1945년 12월 이후 추정)

〈그림 1〉 이재욱의 도서관계 활동사진

31) 동아일보(1946년 3월 11일, 1949년 12월 13일)

32) 사진 ①②③에 원으로 표시된 사람이 이재욱이며, 위 사진 ①②③은 『朝鮮總督府圖書館寫眞集』(1943)에서 가져온 것이며, ④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협조로 입수한 것으로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이 함께 있는 사진이다.

www.kci.go.kr

먼저, 사진 ①은 1931년 8월 5일 조선교육회가 주최한 제1회 도서관강습회 기념사진이며, 사진 ②는 1935년 4월 조선총독부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사진이다. 사진 ①, ②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욱은 사진 첫째 줄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그의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33] 사진 ③은 1939년 4월에 있었던 「조선도서관연맹」 창립 기념사진으로, 이재욱은 연맹의 사서강습회에서 강의한 유일한 한국인 강사였다. ④는 이재욱이 국립도서관장으로서 직원들과 같이 찍은 기념사진이다. 첫째 줄에 미국인은 법제도서관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던 문교부 학무국장 로카드(E. N. Lockad) 대위와 네제비치(E. I. Knezevich) 대위이며, 미국인 좌우로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이 있다. 이재욱은 1945년 10월 국립도서관 관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문제가 된, 미 군정청의 법제도서관 이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1946년 3월에는 국립도서관 기관지 ≪國立圖書館報(文苑)≫를 창간하였으며, 이어서 1946년 5월에는 사서 양성을 위한 「조선도서관학교」를 개교하고 본인이 강사로서 활약한 바 있다.

이상에서 그의 저작 목록의 대강을 살펴보았다. 그의 글을 민속학과 민족 문학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주로 대학 졸업 시기까지에 국한된 것이고 1931년 조선총독부도서관 촉탁이 된 이후부터는 많은 자료를 접하면서 도서관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전에 대한 해제와 해석,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했고, 독서와 문화라는 틀에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각종 신문과 잡지에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조선 문학이 주 전공이지만 문헌학과 서지학에 대한 바탕이 있었고 여기에 도서관 근무를 통한 실무와 근대 도서관의 이론을 접하며 자신의 도서관 경영론을 확립해나갔다. 국립도서관장 관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그동안의 실무와 이론, 대외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위상을 확보한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제강점기 이후의 공백을 메우고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의 기초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국가 전반에 걸친 독서문화 확산에 공헌했다. 여기에 이재욱의 업적을 연혁과 더불어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34]

5. 결 론

이재욱은 한국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에 그치지 않고 한국 도서관계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분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그의 학문 세계와 도서관계에 미친 업적에 대해서는 간혹 에세이 정도에 나타날 뿐, 깊이 있게 연구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시련 속에서 그의 자료와 업적은 소멸하고 가치의 전복이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가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열정을 다해 이뤄낸 연구와 도서관계에 미친 업적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33) 1935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도서관협회가 주최한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가 경성에서 개최되었는데 이재욱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일종의 '준비위' 격인 도서관강습회부터 참가하였다.
34) 근대서지(2009, 429)에서 제공한 연혁에 추가 자료 조사를 통해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www.kci.go.kr

〈표 9〉 이재욱의 주요 연혁과 업적

일자	연혁 및 업적
1905.9.20.	대구 서성동 103번지에서 출생
1926.3.	大邱高普(現 경북고교) 8회 졸업
1928.4.1.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조선문학 전공) 입학
1929.	『童謠集』 수집・정리(노트 필사본. 金善豊 所藏)
1930.07-08.	『嶺南傳來民謠集』-수집・정리(자료 조사지 형태, 原稿 現存)
1931.3.31.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졸업논문:「嶺南民謠研究」
1931.5.	朝鮮總督府圖書館 囑託으로 임명
1931.6.	「朝鮮語文學會」 발기인으로 참여
1931.6-1935.3.	朝鮮總督府圖書館 讀書會-館員研究發表會에서 5차례 발표
1933.	「朝鮮語文學會」 會長
1934.5.7.	「震檀學會」 발기인으로 참여
1935.9.10.	『農村圖書館의 經營法』(한성도서주식회사) 刊行
1935.10.6-7.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준비회」주최 도서관강습회 참가
1935.10.8-10.	일본도서관협회 주최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 참가
1936.8.1-7.	조선총독부도서관 주최 제3회 「도서관강습회」 참가
1937.11-1943.12.	朝鮮總督府圖書館 讀書會, 公開館員研究發表會에서 5차례 발표
1939.2.28.	朝鮮總督府圖書館 司書로 임명
1939.4.1.	朝鮮總督府圖書館 司書主任으로 승진발령
1939.	『(校註)尤庵先生戒女書』 간행. (경성: 대동인쇄)
1939.11-1945.3.	朝鮮總督府圖書館 館長 오기야마 히데오(荻山秀雄)의 와병으로 관장 대행을 하며, 1943년부터 朝鮮總督府圖書館 副館長 역할을 함
1945.8.15.	경북도청 사회교육과 근무 중에 해방 맞음
1945.10.16.	美 軍政廳 文敎部 敎化局으로부터 국립도서관 관장에 위촉됨
1946.3.	『國立圖書館報(文苑)』 창간
1946.3.	「이조실록간행위원회」 편집위원으로 위촉
1946.3.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에 추천회원으로 참여
1947.4.1-1950.5.20.	「朝鮮圖書館學校」 개교-운영(총 5회, 77명 배출)
1947.8.25.	「朝鮮書誌學會」 發起人으로 참여
1947.4.20-1950.7.	「朝鮮圖書館協會」 제2대 회장 겸임
1947.	『李朝實錄攷』 발간(정음사)
1947.7.	조선도서관협회장으로서 미국도서관협회장과 친서교환
1947.8.	『讀書와 文化』 발간(조선계몽문화사)
1947-1948(?)	『朝鮮書誌學槪論』 著(講義案 노트. 呂丞九 所藏)
1947.10-1949.10.	朝鮮圖書館協會 주관으로 3회에 걸쳐 강습회실시(강사로 참여)
1949.1.18.	朝鮮圖書館協會 명의로 '사서 명칭 복원'을 위한 건의서를 문교부 장관, 법제처장, 총무처 인사국장에게 제출
1949.9.17.	朝鮮圖書館協會 이사회를 통해 '讀書週刊' 제정
1949.12.	「韓國文學家協會」 결성에 참여
1950.07.18.	한국전쟁 중에 북한군 정치보위부에 연행됨
2005.10.19.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공로패가 수여됨

www.kci.go.kr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그의 저작 목록은 모두 196건에 달한다. 부분적으로 재수록되었거나 기존의 글을 변형해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작가보다도 압도적인 저작량인 것은 분명하다. 한국인 최초의 도서관 전문 서적인『農村圖書館의 經營法』등 단행본 7권과 ≪文獻報國≫ 등에 기재된 연구논문 형태의 글 60편, 각종 잡지에 게재된 독서문화 성격의 에세이 61편과 신문 칼럼 44편 등을 포함해 모두 190편에 달했다. 이 연구에서의 저작 분석을 위한 이재욱 관련 간접기사는 단지 신문 6건만 다루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그의 조선총독부도서관 활동과 관련된 4건의 사진도 입수하였다.

이재욱은 경성제국대학교 입학과 졸업, 창씨개명,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근무와 같은 시대적 조건 속에 조선의 엘리트가 처한 친일의 굴레에서 온전할 수 없었으나, 한국의 민요를 발굴하고, 고전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책과 글을 발굴하여 문헌학과 서지학적 가치를 찾아낸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의 업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일제강점기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에『농촌도서관의 운영법』을 펴내 도서관을 통한 농촌의 계몽을 생각했고, 도서관 운영의 핵심 가치가 되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인으로서 근무하는 전 기간, 각종 매체를 통해 노력하였다는 점도 그가 남긴 도서관계의 큰 유산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국립도서관 관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립도서관이 법제도서관으로 이분화되는 것을 막아내고, 국립도서관 기관지인 ≪國立圖書館報(文苑)≫를 창간하고「朝鮮圖書館學校」를 개교하여 후진 양성에 힘쓴 것은 그가 초기 국립도서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44편의 논설과 칼럼을 주요 신문에 게재할 정도의 전문성과 교양을 가졌던 관장으로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독서와 책의 가치를 하나의 문화 운동 시각에서 주장하고 전개한 것은 지금까지 도서관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업적으로 사료된다.

다른 한편,「조선도서관협회」회장으로서도 '司書'라는 명칭을 지켜내기 위해 대정부 활동을 했고, 사서 양성을 위한「조선도서관학교」설립 외에도 3년여간 3회에 걸쳐 '도서관사업 강습회'를 주관했다. 대외적으로도「미국도서관협회」와 교류하는 등 외국기관과의 첫 교류도 시작했고, 독서주간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등 초기「조선도서관협회」의 방향을 선도해 나가는 데도 공헌했다.

이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모든 글의 원문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민속학 분야는 배경숙의 연구에서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도서관 관련 전문 학술지는 전문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교양잡지 8건과 신문 기사 2건은 목록만 확인했는데, 목록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이재욱의 업적을 찾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언어, 고전해석 능력, 일부 원문 상태 등 여러 한계가 있어서 키워드 중심의 간략한 내용 분석이 중심이 되었다. 무엇보다 향후 이재욱의 연구주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지면 제한도 고려하여 이재욱 연구의 본질인 인물 연구와 세밀한 저작 분석은 다음 연구로 미루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연구에서 시도한 이재욱 저작 목록의 완성과 업적 조사는 향후 이재욱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1] 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共著, 최석두 옮김. 2009.『일본의 식민지 도서관: 아시아에서의 일본 근대 도서관사』. 한울아카데미.

[2] 國立中央圖書館 編. 1973.『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3] 근대서지학회 편. 2013. [특집자료] 납월북 문예인 자료 '6・25에 생각나는 사람들' ⑤이재욱(李在郁). 근대서지 7호: 426-444.

[4] 金善豊. 1996. 趙潤濟・李在郁論－民謠集과 童謠集을 중심으로.『韓國民俗學』, 28(1996.12): 193-210.

[5] 金善豊. 1995. 새 發掘－民謠潗(李在郁編)에 대하여.『韓國民謠學』, 3輯: 205-233.

[6] 金載元. 1992.『(초대 박물관장 자서전)박물관과 한평생』. 탐구당. 90-91.

[7] 裵京淑. 2008.『이재욱의 영남 전래 민요집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8] 서울대학교도서관50년사편집위원회 편. 1996.『(서울大學校)圖書館五十年史: 1946-1996』.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9] 영남민요연구회 편. 2013.『이재욱 전집(1-3)』. 국학자료원.

[10] 이재욱. 1935.『農村 圖書館 經營法』.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60.

[11] 이재욱. 1947.『讀書와 文化』. 조선계몽문화사, 78.

[12] 이재욱. 2007.『영남전래민요집(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자료총서 22)』. 景仁文化社

[13] 이재욱. 2019.『在家僧漫考』. 온이퍼브 편집부 역. 온이퍼브 전자도서.

[14] 李禎夏. 2007.「내가 기억하는 아버님 이재욱(李在郁)」,『이재욱 편, 영남전래민요집』. 景仁文化社, xii-xiii.

[15] 이혜숙, 백창민. '제국의 사서' 이재욱과 박봉석은 '친일파'인가? ohmynews 연재 [도서관, 그 사소한 역사] 국립도서관(2019.8.8.)① [online] [cited 2021. 1. 15.]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2009〉

[16] 任東權. 2013.「서로의 교분－이재욱」, 임동권, 남기고 싶은 말. 민속원, 306-314.

[17] 朝鮮總督府圖書館 編. 1943.『朝鮮總督府圖書館寫眞集』. 京城: 朝鮮總督府圖書館.

[18] 趙容萬. 1954. 새해에 생각나는 사람들－李在郁兄.『新天地』, 9(1): 202-204.

[19] 조혜린. 2020.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 이재욱에 대한 一考: 조선총독부도서관 기관지『문헌보국(文獻報國)』을 중심으로.『書誌學硏究』, 84: 279-298.

[20] 한국도서관사연구회 편. 2020.『일제강점기 도서관 간행물 목차집』. 서울: 도연문고.

[21] 한국도서관협회 편. 2005.『韓國圖書館協會60年史』.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www.kci.g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ato Kazuo, Kawata Ikoi, Tojo Fuminori Co-author. Translated by Seok-Doo Choi. 2009. *Japanese Colonial Libraries: Japanese Modern Library History in Asia*. Seoul: Hanul Publishing Group.

[2] National Library of Korea ed. 1973. *The History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3] Modern Bibliographic Society ed. 2013. "[Special Reference] A literary man who is kidnapped and defect to North Korea: 'people who come to mind at 6.25' ⑤Jaewook Lee." *Modern Bibliography*, 7: 426-444.

[4] Kim, Seon-Pung. 1996. "Comment on Yunje Cho and Jaewook Lee - Focusing on A Collection of folk songs and children's songs." *The Korean Folklore Society. The Korean Folklore*, 28 (1996.12): 193-210.

[5] Kim, Seon-Pung. 1995. "New Excavation - A Collection of Folk Songs(by Jaewook Lee)" The Society of Korean Folk Songs. *Korean Folk Songs*, 3: 205-233.

[6] Kim, Jaewon. 1992. *(Autobiography of the first museum director) Museum and A Lifetime*. Seoul: Publishing Company Tamgudang, 90-91.

[7] Bae, Gyeung-Sook. 2008. *A Study on Lee Jae-Uk's A Collection of Yeungnam Traditional Folk Songs*.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8] Committee of the 50 Years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ed. 1996.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0 Years History: 1946-1996*.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ral Library.

[9] Yeungnam Folk Song Research Association ed. 2013. *The Complete Works of Jaewook Lee (1-3)*. Publishing Company KOOKHAK.

[10] Lee, Jaewook. 1935. *Rural Library's Management Method*. Kyungsung: Hansung Book Co., Ltd. 60.

[11] Lee, Jaewook. 1947. *Reading and Culture*. Kyungsung: Publishing Company Chosungyemongmunhwasa. 78.

[12] Lee, Jaewook 2007. *Yeungnam Traditional Folklore Collection (Ethnic Culture Materials Series 22*, Yeungnam University Institute of Ethnic Culture). Kyungin Publishing Company.

[13] Lee, Jaewook. 2019. *Jaegaseungmango*. Onepub Editorial Department translation. Onepub e-book.

www.kci.go.kr

[14] Lee, Jung-ha. 2007. "*My Father, Jaewook Lee,*" (in the *Yeungnam Traditional Folklore Collection* worked by Jaewook Lee'). Kyungin Publishing Co., xii-xiii.

[15] Lee, Hyesuk and Baek, Changmin. "'imperialism's librarian', Jaewook Lee and Bongseok Park is 'Pro-Japanese'"? *ohmynews* series. [Library, its trivial history] National Library (2019.8.8.)①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2009〉

[16] Im, Dong-kwon. 2013. *Mutual acquaintance-Jaewook Lee(Dong-kwon Lim, the word I want to leave)*. Publishing Company Minsokwon, 306-314.

[17] Chosun Government-General's Library ed. 1943. *Chosun Government-General's Library Photo Collection*. Gyeongseong: Chosun Government-General's Library.

[18] Jo, Yongman. 1954. "People Who Come to Mind in the New Year: Jaewook Lee," *Shincheonji*, 9(1): 202-204.

[19] Jo, Hye-rin. "A Study on 'Lee Chai Wuk', the First Director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Focused on 'Munheon Boguk' published by the Library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Kore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84: 279-298.

[20] Korean Society for Library History Research ed. 2020. *Table of contents of library publicati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oul: Doyeon Bookstore.

[21] Korean Library Association Korean edition. 2005. *Library Association 60-Year History*.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www.kci.go.kr